

##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

국립의료원 흉부외과

김경훈·강경민·강경훈·허 용·김병열

최근 내시경의 발달과 보급으로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그 활용도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흉강경조작의 간편성 및 영상기술의 발달 등으로 흉부질환의 진단과 흉부 수술범위가 점차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실정이다.

국립의료원 흉부외과에서는 1994년 9월 부터 1996년 7월 까지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을 39례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 33명, 여자 6명으로 남녀비는 5.5:1이었다.

나이는 18세에서 76세 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나이는 28.7세였다.

대상질환은 자발성 기흉이 33례 (84.6%)로 가장 많았으며, 다한증이 3례, 동맥관개존증 1례, 흉벽지방종 1례 및 특발성 폐섬유증 1례이었다.

수술은 기흉에 대한 기포절제술 33례, 교감신경절제술 3례, 동맥관개존증 절찰술 1례, 흉벽 지방종제거술 1례 및 폐조직생검 1례이었다.

수술후 흉관거치일은 평균 3.7일이고, 병원체재일은 술후 8.7일이었으며, 수술후 합병증은 3일 이상의 지속적인 공기누출이 5례 있었고, 창상감염 4례로서, 합병증 발생율은 9례 (23.1%)이었다. 수술 사망례는 없었다.